

밴스 “의회난입 때 폭력사범 사면 안돼”...트럼프와 온도차

부통령 1·6사태 사면 기준 제시...트럼프, 관련 확답 피해 밴스,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에 “앞으로 거래 이뤄질 것”

JD 밴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은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이른바 '1·6 사태'와 관련, 당시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사면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밴스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6 사태 관계자 사면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2021년) 1월6일에 평화롭게 시위했는데 메릭 갈랜드(현 바이든 행정부 법무장관)의 법무부가 경단 취급을 했다면

사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밴스 당선인은 “만약 그날 폭력을 썼다면 분명히 사면되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1·6사태 관련 폭력 시위자와 비폭력 시위자 사이에) 약간의 회색 지대가 있다”고 지적한 후 “우리는 평등한 법 집행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이 1·6 사태 후 부당하게 기소됐기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6 사태와 관련해 폭력 사범은 사면 해주면 안 된다는 밴스 당선인의 발언



지난 7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오른쪽).

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련 언급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드러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1·6 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하기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그렇다”고 답한 후 재확인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사안별)로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1·6 사태 관계자 중 폭력행위를 자행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개별 사례를 살펴볼 것이고, 매우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밴스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 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린란드(덴마크령)에 대해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엄청난 천연자원이 개발되도록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리더십을 보여줄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밝힌 후 “트럼프는 거래에 능하다. 그린란드에서 이뤄질 거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친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트럼프 당선인 장남)가 수일 전 그린란드에 갔을 때 주민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 권리를 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한 무력행사 배제를 약속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힌 것이 군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를 강제 병합할 의도를 드러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 당선인은 이미 그린란드에 미군이 주둔 중이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태국 中 배우 납치사건에 중국인 관광객 발길 돌려

춘제 연휴 대목 앞두고 태국 관광업계 비상

중국 배우 왕싱(활동명 심상·31)이 태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만큼 중국의 최대 관광 성수기인 춘제(설) 연휴를 앞두고 태국 정부는 속을 썩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서 '태국 여행을 취소하는 법'을 검색한 결과 게시물이 38만 건 이상 검색됐다.

저장성에 사는 한 중국인 여성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춘절 연휴에 친구 3명과 함께 태국 여행을 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납치 사건에 일행 4명의 만장일치로 여행을 취소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의 상하이 오프라인 매장 관리자는 왕싱 납치 사건의 영향으로 태국행 예약이 줄었다고 말했다.

왕싱은 지난 4일 태국-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후 미얀마에서 발견돼 태국을 거쳐 전날 중국으로 귀국했다.

영화 '엽문 3', 드라마 '매괴적고사'(장미의 이야기) 등에 출연했던 왕싱

은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도착했다가 태국과 접경 지역인 미얀마 미야와디로 끌려갔다.

사발이 된 채 초체한 모습으로 발견된 왕싱은 태국 경찰에 자신이 중국 범죄 조직에 납치됐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사기 수법을 교육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패동탄 친나와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태국 관광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왕싱이 구출된 후 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국 관리가 왕싱에게 다시 태국으로 여행을 올 의사가 있음을 밝히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다.

왕싱은 영어와 중국어로 “태국은 안전하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모델 양찌치(25)의 가족도 양찌치가 왕싱과 비슷하게 지난달 20일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했고 다른 미얀마 실종 중국인 174명의 가족들도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3천500만명이며, 이 중 중국인이 67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왕싱이 끌려간 미야와디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중국계 등

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악명이 높다. 이들은 취업 광고 등으로 끌어들여 거나 납치한 인력을 콜센터 같은 대규



산불 진화하는 항공기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불어 통제불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기업 에어캐리어에 따르면 모든 것을 처참히 태워 버리고 있는 산불로, 현재까지 1천500억 달러(221조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아직 산불이 진압되지 않은 만큼 피해는 엄청난 규모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형 산불로 소방용수가 바닥나면서 당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내려고 있다고 현지매체가 전했다. 바닷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소방용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항공기가 추력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모 사기 작업장에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키곤 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3년 미야와디에 서만 최대 10만명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 /연합뉴스

에콰도르서 현직 시장 피살

내달 대선 앞두고 치안 우려

다음 달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현직 시장이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에콰도르 내무부는 12일(현지시간) “무장 공격을 받은 에베르 폰세 로세로 시장의 사망에 슬픔을 느끼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찾아 엄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엘오르주(州)에서는 아레니아스 시장 인로세로가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았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들이 로세로 시장이 탑승한 차를 노리고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행사 참석 후 이동 중이었던 로세로 시장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을 거뒀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동승자 3명은 상처를 입었다.

클레멘테 브라보 엘오로 주지사는 엑스(X·엡 트위터)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갱단 간 분쟁에 얼룩지고 있다. 특히 2023년 보궐 성격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가 피살되기도 했다. 지난해 초엔 현직 자치단체장, 검사, 교도소 소장 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